

군산사랑상품권 200억원 추가 발행

지난 9월부터 발행한 상품권 모두 판매 예상됨에 따라

군산시가 올해 9월부터 발행한 710억 원의 군산사랑상품권이 모두 판매 될 것으로 예상돼 20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200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면 올해 910억 원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71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성공적으로 유통시킨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성과이며 이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잇따라 지역주도형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시민들이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골목상권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군산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인한 매출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71.4%의 가맹점이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지정한 4개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 새마을 금고, 신한) 72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관내 8,4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을 구입하면 개인 소비자는 10% 할인 구매를 통해 식당, 주유소,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가맹점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시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소지 내 가맹점 1곳을 포함한 군산시내 가맹점 2곳 이상(음식점 포함)에서 1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하면 격월로 군산사랑상품권 15,000원으로 환급해주는 거주지 내 골목상권 소비지원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월명수영장과 대야수영장 수감 신청 시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근대역사박물관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상당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등 상품권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산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회복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가 2018년의 의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은 조규대 의장.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달렸다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올 한해 마무리 소감

지난 7월 '열심히 일하는 의회', '책임 다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제8대 익산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2018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규대 의장은 "먼저, 한 해 동안 익산시의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셨던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6개월 동안 큰 대과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장이란 자리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웠지만, 익산시민의 행복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결같은 초심 그대로의 자세로 현재까지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되돌아 봤다.

그는 "제8대 익산시의회는 앞으로 익산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먼저 "익산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62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21건 등 모두 10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3회를 실시했으며, 총 5건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19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민생분야와 지역현안에 중점을 둔 질문과 발언으로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조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배후 도시 조성,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분야 감사, 농민이력제 시스템 검토 등 456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거나 건의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 집행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9년 본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건전한 재정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였다"며 "한편으로, 시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해 협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집행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내실 있는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 공유, 총 19개소의 주요 사업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시 쟁점·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이와함께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주요현안 사업장을 발로 뛰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발로 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주요현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발로 뛰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시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의원들을 평가했다.

조 의장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조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고 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최우수'

군산시가 11일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주최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계자 연찬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우수지자체 4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6년과 17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투자 사업은 총 17개 사업(지역사회 투자사업 16개, 가사간병사업 1개)으로 총 사업비 32억 9,3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 제공기관 64개소에서 3,22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분야에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자체 발굴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인력 자체교육 2회 실시, 담당공무원 간담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 멘토&멘티 결연 활성화 운영,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시 이용자 발굴 등 지역사회 서비스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했다.

또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서 품질이 관리되고 유지되는 점에 초점을 두고 9개소 48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 바

우체 카드 사용방법 등 찾아가는 이용자 교육을 실시해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소통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로 원활한 사업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장점마을 사태 지적

정현울 익산시장이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장점마을 폐기물 사태와 관련, "해당 부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옛 숙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행정의 안일한 대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시민공청회 통해 아동수당 현행방식 유지

군산시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아동수당에 관한 시민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해 아동수당에 대한 기존의 현금 지급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개최된 공청회에는 아동수당 수혜자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화제로 지급

시 사용처 제한 및 불완사항 등 군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대한 지적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방식을 전환하기에는 시민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고 보호자 선택에 따른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지급 여건을 조성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

에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여건이 조성되어 지급방법에 대해 재논의가 되더라도 아동 보호자의 선택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익산시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1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다.

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총 사업비 29억원, 이용자 수 2천700명, 제공기관은 15개로 지역특성

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규순 복지청소년과장은 "성과는 시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소방서, 피난약자시설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

익산소방서가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 저감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소방안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수시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내용은 ▲출동 중 실시간 현장영상정보를 파악하여 화재진압에 활용하기 위해 요양병원 CCTV와 연계한 영상확인 시스템 구축 ▲휴대

용산소마스크와 피난유도선 ▲입원환자의 중증도 현황 ▲화재 상황 시 신속·정확한 인명구조 '소방대진입장' 제작 ▲피난약자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